

가족의 변화 : 그 관점과 생점

공 세 권*

조 애 저**

1. 가족유형
2. 생활주기
3. 가족문제
4. 결론 및 요약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형태나 기능, 역할 및 가치관 등 모든 측면이 변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변화에서 뒤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문제는 주요관심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전통가족은 한 가족이 같이 살면서 가족중심의 자급자족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가족은 개인중심의 분업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은 학교로, 남편은 일터로, 그리고 부인은 가사를 돕는 형태가 보편적이지만 이러한 정형(定型)도 최근에 이를 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식각 이합집산(離合集散)의 형태로 변하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인만이 사는 가족은 대개

온종일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농촌으로부터 취학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와서 사는 이농가족(離農家族)은 낮이면 늘 방문이 잠겨있다. 그런가 하면 밤이면 일을 하고 낮이면 잠을 자야 하는 가정도 있고,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도 전체 가구의 10퍼센트나 된다. 가장이 취업을 통해서 그 임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전체 가구의 3/4에 이르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온가족이 이를 돕는 형태는 흔치 않다. 이처럼 현대가족은 일정한 표준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현대가족은 외형적으로 고립된 핵가족형태를 이루면서 그 생활은 사회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집에서만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새삼스럽게 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한 변화를 주시해야만 하는 것일까? 가족은 대개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나 현대가족은 결혼과 성, 출산과 양육, 그리고 부양과 보호와 같은 점만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젊은 층일수록 개인역할의 다양화와 함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독신가족, 부부가족, 이혼가족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노인가족이나 소년소녀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가족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키워준 부모를 봉양하며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형태의 퇴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회가 급변하듯 가족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화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가족의 변화에서 인간생활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내포한다. 긍정적인 면은 생활수준의 향상, 가사노동의 경감,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은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공동체意識의 약화와, 부양체계의 와해, 그리고 해체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산업화에서 개인역할의 다양화로 인한 가족의 분화현상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조절이 상대적 가족부양비를 높이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어렵게 된 점을 부양체계의 와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결혼행태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앞거나, 결혼 후 이혼 및 사별율의 증가와 사회적 가정파괴의 증가를 가족해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가족은 개인중심의 역할 및 가치관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게 되면서 이를 일정한 구조나 기능 및 유용성만을 가진 것으로 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전통가족을 법적 결혼과 생물학적 부모·자식간의 정서적 집단으로 본다면 현대가족은 대인(對人)적 역할중심의 생활집

단으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외형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든지 그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 가족의 본질이 혈연을 기초로 한 독립된 생활과, 그러한 생활로 삶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점에 있다면 이의 유용성은 그 규모나 구성원의 가치관, 역할 및 관계 등에서 생각할 수 있다.

현대가족은 그 생계를 대부분 취업에 의존하면서 가족생활은 성원간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취업조건이 가정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듯 가족성원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취업을 원하게 되었고, 또 좋은 일자리는 일정한 교육을 필수로 하면서 취업과 교육은 가족생활에서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가 오늘날의 가족상(家族像)일 수 있지만 가족생활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가족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의존형도 있고, 가족성원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자 주장을 달리하면서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러한 현대가족의 구조적 불균형, 기능적 부조화, 그리고 가치관의 괴리현상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기존자료를 토대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출산력의 저하 등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 등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뒤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자료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1986년에 실시한 가족생활주기조사, 1989년에 실시한 가족기능 및 역할조사,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1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 그리고 1993년에 실시한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과 관련자료이다.

1. 가족유형

주거 및 생활단위로서의 가구 *household*나 가족 *family*은 이를 구성하는 성원간의 관계에 의해서 구분된다. 가족은 결혼, 출산, 입양 등을 포함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가구는 혈연관계를 고려치 않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가구 *family household*, 즉 가족원과 일치형(一致型)이나 한 가족중 일부가 떨어져 사는 분거형(分居型), 한 가족이 비혈연과 동거하는 혼합형(混合型), 또는 한 가족의 일부가 떨어져 살면서 비혈연과 동거하는 복합형(複合型)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공세권 외, 1990, 1992).

그렇다면 왜 가족은 그들만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다양한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을까? 사회조직은 나름대로 특수한 목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필수로 하듯 이러한 점은 가구나 가족집단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가족의 공동체적 생활은 생산과 소비, 출산과 양육, 부양과 보호, 그리고 사회화 등 인간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기초로 하며, 이는 성원간의 역할보완으로 가능케 된다. 따라서 가구가 가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는 가족 자체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또는 생활의 편의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변형(變型)일 수 있다.

이처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구와 혈연관계로서의 가족의 양립은 사회경제구조나 문화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최근 조사에서 한 가족이 한 가구를 이루는 소위 가족가구는 전체가구의 78퍼센트이며, 나머지 22퍼센트는 변형된 가족형태이다. 변형된 가족은 가족원의 일부가 취업이나 취학을 위해서 분거한 경우나, 분거된 독립가구를

이루거나 또는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형태로서 전국적으로 한 가족중 일부성원이 떨어져 사는 경우도 약 21퍼센트이며, 특히 농촌가구는 도시화현상에 따라 약 42퍼센트에 달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가족의 원형(原型)을 부부와 자녀로 구성하는 생활단위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원형은 산업화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로 재구성됨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의 재구성은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원형적 가족형태는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기간에만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이나 취업, 가족갈등 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재구성된다. 즉 가족은 그 자체가 일정한 틀에 의해서 보다는 개인의 역할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족에 관한 정의가 학자에 따라서 다르듯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삼느냐는 점은 간단치 않다.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친족 등으로 구성하는 혈연관계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동거여부나 부양관계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공식적 분가를 하지 않은 가족에서 이들 성원중 일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면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의존성, 가족간의 권력관계, 또는 가족간의 친밀도 등이 가족의 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는 실제조사에서 제도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을 생물학적 재생산과 혈연관계(또는 양자와 같은 유사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유형을 일정한 틀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족은 부부와 자녀중심의 부부가족 *conjugal family*이나 핵가족 *nuclear family*, 또는 확대가족 *extended family*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부부와 그들 자녀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양자가족 *adoptive family*, 편부모가족 *single-parent family*, 재혼가족, 동거단위 또는 동성애 가족 *lesbian family*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의 다기능적(多機能的) 복잡한 관계는 가족의 범위나 유형이 제한적일 수는 없지만 주거단위를 중심으로 할 때는 비교적 명료해질 수 있다.

최근 자료에서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0년에 5.6명이 1970년에는 5.2명으로, 1980년에는 4.6명, 그리고 1991년은 3.6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전체 가구원수로 볼 때도 5명 이상이 동거하는 가구는 1960년에 64.1퍼센트에서 1991년에 24.4퍼센트로 줄어들고 4명 이하의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는 점차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의 변화는 그 규모의 축소와 함께 세대구성 역시 핵가족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전체가족중 3세대 이상이 동

거하는 경우가 1960년에 28.5퍼센트였으나 1991년은 11.3퍼센트로 17.2 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1세대 가족은 1960년에 7.5퍼센트가 1991년에 24.0퍼센트로 3.2배 증가한 데서 엿볼 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1991년 전국의 11,54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가구원수는 3.56명이었고, 이들 가구중 혈연관계를 갖는 동거가족원수는 3.54명, 그리고 분거가족을 포함한 전체 가족원은 3.89명이였다. 또 가족의 세대구성을 1세대가 24.0퍼센트, 2세대가 64.7퍼센트, 그리고 3세대 이상이 11.3퍼센트로 1~2세대가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규모 내지 세대구성의 지역별 차이는 농촌가족(4.2명)이 도시가족(3.8명)보다 그 규모는 크지만 오히려 동거가족은 적게 나타나고, 또 농촌가족은 다세대 구성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표 1>

가구원수 및 세대구성의 변화

(단위 : %)

가구원수 및 세대구성	1960	1970	1980	1991
가구원수				
1명	2.3	3.7	4.8	9.7
2명	7.1	9.4	10.5	16.5
3~4명	26.5	27.8	34.8	49.4
5명이상	64.1	59.1	49.9	24.4
평균(명)	5.6	5.2	4.6	3.6
세대구성				
1세대	7.5	6.8	14.5	24.0
2세대	64.6	70.0	68.5	64.7
3세대이상	28.5	23.2	17.0	11.3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연도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지역별 평균가족원수 및 세대구성

(단위 : 명)

지 역	전 체 가구원	전 체 가족원	동 거 가족원	가족의 세대구성(%)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전 국	3.56	3.89	3.54	24.0	64.7	11.3
도 시	3.63	3.78	3.59	21.7	68.5	9.8
농 촌	3.39	4.18	3.38	36.6	54.0	15.4

가족규모의 축소와 함께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가족규모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입양 등에 의해서 확대되고, 이혼, 분가, 그리고 사망 등에 의해서 축소된다고 할 때 그간 이들 요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은 급세기 중 급격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서 결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감소는 가족확대를 억제한 반면,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분가 내지 분거화현상의 보편화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왔다. 따라서 가족은 확대요인의 통제 내지는 축소요인의 상승으로 소가족화현상이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전통사회에서 가족생계는 가족중심의 자급자족 형태를 이루면서 많은 일손이 요구되어 대가족 내지 다자녀가 요구되었다면, 근대사회에서는 개인중심의 취업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가족의 분화현상과 함께 소자녀의 유의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를 기업중심으로 바꾸면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와 가사노동의 기계화에 따라서 개인능력을 위주로 한 취업형태가 개인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전통적 대가족 내지 확대가족은 소

가족 내지 핵가족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가족 내지 핵가족은 그것이 특정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을 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르게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문제는 원인의 다양성, 내용의 복잡성 등에서 복잡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인 점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공간을 이루는 부양문제에 귀착된다. 가족부양은 성원간의 부양자원(정신적, 육체적 또는 물질적)의 교환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소가족 내지 핵가족형태에서 이러한 부양자원의 교환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말하자면 핵가족 내지 소가족이 개인중심의 다양한 역할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개인중심적 역할중시는 가족 자체가 요구되는 공동체의식과 유대 및 협력관계의 균열 내지는 단절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소가족 내지 핵가족화현상에서 또 다른 관심은 혼자 사는 가구와 둘이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1960년 1인 가구는 전체가구중 2.3퍼센트, 2인 가구는 7.1퍼센트로 1~2명으로 구성되는 가구가 9.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은 1인 가구가 9.7퍼센트, 2인 가구가 16.5퍼센트로 1~2명으로 구성되는 가구는 26.2퍼센트로 전체가구중 1/4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여

기서 1인 가구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68.7%)되어 있고, 또 여자(65.5%)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개 20대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미혼(43.3%)이나 사별, 이혼 및 별거 등 해혼(53.2%)의 경우이다. 또 혼자 사는 사람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15.3퍼센트에 불과하며, 또 직업을 가진 경우는 생산 또는 단순노무직(21.9%)이나 판매 및 서비스직(17.6%)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혼자 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여성이 많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의 미혼자들로 판매·서비스직(26.0%)이나 생산 및 노무직(15.9%)의 여성들임을 생각할 수 있다(공세권 외, 1992).

그러나 2인 가구는 1인 가구와 달리 배우관계에 있는 가구주가 69.1퍼센트에 달한다. 즉 도시지역의 남자가구주는 84.4퍼센트가 배우관계를 갖고 있지만 여성가구주는 미혼(38.7%)이나 해혼(57.6%)의 경우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50대를 전후해서 자녀를 모두 도시로 보낸 중년 내지 노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미혼 또는 해혼상태의 여성가구주는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또는 생산·노무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별상태의 여성가구주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이처럼 가족은 사회적 이동과 함께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형성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부와 자녀중심의 혈연단위로 생각되지만 현대가족은 결혼에 앞서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집단으로서 가족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성장가족 *family of orientation*도 변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화에서 취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서 성장가족과는 떨어져 살면서 새로운 생활단위가 형성되고, 성장가족은

그들 부모만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독신가족이나 이혼가족, 또는 해체가족도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래적 욕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위한 분화 내지 재조합으로 새로운 형태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제시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전통가족이 혈연중심의 생활체계를 위해 이루어졌다면 현대가족은 개인의 역할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고 현대가족이 본래의 가족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가족으로부터 분리 및 이탈(逸脫)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또 이로 인해 성장가족이 변형되는 것을 놓고 가족형태의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아직도 약 3/4에 달하는 가족이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원형(原形)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3/4에 달하는 부부중심 가족도 따지고 보면 자녀규모의 축소와 함께 20대를 전후한 미혼세대의 이탈로 노인가족과 젊은 가족으로 양분되고 있음은 주목된다(공세권 외, 1987, 1990, 1992).

2. 생활주기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그 규모나 세대구성 또는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정태적 측면 *static notion*으로 본다면, 생활주기 *life cycle*나 역할관계 *role relationship*는 역동적 측면 *dynamic notion*에 해당한다. 여기서 생활주기는 개인을 기초로 출생후 사망까지의 기간중 특정사건 *events*을 중심으로 표현되지만, 가족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는 결혼생활의 변화과정을 기초로 한다

는 점에서 결혼시기와 결혼후 출산기, 자녀의 양육기와 분가기,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독신기,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구분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점은 핵가족을 기초로 결혼과 함께 재생산행위가 이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앞거나 결혼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 혼전 및 혼외 출산의 경우, 또는 복혼가족 *polygamous family* 등에서는 가족생활주기의 추정이 어렵게 된다. 즉 가족생활주기는 일반적인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기초로 그 가족이 어떻게 성장·발전해 가느냐는 개념인 것이며, 그 단계의 구분 역시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가족의 축소기에서 자녀가 가족을 떠나는 시기를 분가(分家)개념에 의하느냐 아니면 분거(分居)개념에 의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가족생활주기의 추정에 관한 이론적 측면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조의 역동적 측면을 논하면서 그러한 생활주기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

토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가족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외형적 소가족화 내지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양식은 물론 생활주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먼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템포 *fertility tempo*가 빨라졌고, 또 대부분의 부인은 적은 자녀수를 두려는 경향과 아울러 평균수명이 연장된 데서 그 특징이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추정에는 1986년 가족생활주기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공세권 외, 1987). 여기서 1935~1944년간의 결혼코호트에서 결혼후 부부가 모두 사망시까지의 기간인 전체주기는 44.5년이었고, 1955~1964년간의 결혼코호트에서는 46.2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75~1985년간의 결혼코호트에서는 51.8년으로 결혼생활기간이 지난 30년간 약 7년정도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기간에서 단계별 특징은 주로 만혼과 저출산현상으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가족형성에 기초가 되는 결혼양태를 살펴보면, 결혼은 남녀가 부부와 부모됨을 전제로 결합함을 뜻한다. 결합의 조건이나 절차는 대개 사

〈표 3〉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구분

단계별 구분	단계의 시작	단계의 끝
1. 가족 형성기	결혼시기	첫자녀 출산시기
2. 가족 확대기	첫자녀 출산시기	막내자녀 출산시기
3. 가족확대 완료기	막내자녀 출산시기	자녀결혼시기
4. 가족 축소기	자녀결혼시기	자녀결혼 완료시기
5. 가족축소 완료기	자녀결혼 완료시기	배우자 사망시기
6. 가족 해체기	배우자 사망시기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기
전체가족주기	결혼시기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기

자료 : 공세권 외, 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회제도나 규범적 틀을 따르지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가족의 뜻에 의한다. 그렇다고 결혼을 사적(私的)인 이성간의 결합, 그 자체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결혼이 가족형성을 뜻할 때에는 개인은 물론 그들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과 법적 보호를 필수로 한다. 이처럼 결혼은 결혼당사자들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태어날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는 물론 친족간의 관계, 그리고 태어날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는 물론 친족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등 인간관계에서 주요 의미가 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중심적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도 개인의 뜻에 의한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부모의 뜻에 의한 가계계승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문간 이웃간의 조혼(早婚)이 성행되었다. 조혼의 경향은 당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두면서 가문을 넓히며, 대를 이어가기 위한 점에서 이루어졌고, 가부장제도는 가족의 권위와 가족중심의 생활양식을 위한 단편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제도와 결혼관습은 산업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화에서 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대는 미혼자들에게 혼전역할을 다양화시키면서 혼기를 늦추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또 개인역할의 다양화는 가족중심의 집단의식을 개인중심의 이기의식을 갖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은 대개 부모의 뜻에 의한 가족중심에서 보다는 본인의 뜻에 의한 개인중심으로 성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초혼시 연령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미혼율에 의한 평균초혼연령은 1925년에 남자가 20.2세, 여자가 16.7세로 추정(Y.S. Chang, 1966)되었으며, 30년후인 1955년에는 남자가 21.7세, 여자가 20.5세(Y.Kim, 1967)로 나타났다. 그후 다시 30년이 지난 1986년에는 남자가 27.3세, 여자가 24.3세(공세권 외, 1987)로, 또 1990년에는 남자가 28.2세, 여자가 25.1세(조애저 외, 1992)로 추정되어 지난 60년간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약 8세 이상이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925~1940년간의 2차대전 이전 초혼연령을 남녀 모두가 1세정도가 연장된 반면, 2차대전 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7세정도가 연장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초혼연령의 추정은 헤즈널(Hajnal, 1953)에 의한 미혼율을 기초로 한 방법과 조사결과에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방법이 있다. 여기서 미혼율에 의한 초혼연령은 50세 미만의 연령별 미혼율을 감안한 것으로 결혼연령의 변동이 심하여 미혼율이 높을 때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초혼연령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결혼코호트별 초혼연령은 1935~1939년간의 결혼에서 남자가 21.3세, 여자가 15.0세였으며, 1960~1969년간의 결혼에서는 남자가 25.6세, 여자가 21.4세, 그리고 1990~1991년간의 결혼에서는 남자가 27.6세, 여자가 24.4세로 1960년 이전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1세정도 낮게 추정된다(공세권 외, 1987, 1992).

혼전역할의 다양화로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그 결과는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으로 출산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연출산 *natural fertility* 상태에서 결혼시기는 임신노출상태 *preg-*

nancy exposure status에 영향을 미치면서 출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조절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출산력은 결혼시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면서 한국의 출산력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는 그간 결혼시기의 연장과 피임실천율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출산력에 부정(負的)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산간격은 오히려 빨라졌던 점이 특징일 수 있다.

이처럼 가정내에서 자녀수의 감소는 그것이 가족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부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에서 1990년 1.6으로 감소되면서 가족규모 역시 1960년에 5.6명이 1990년에 3.6명으로 감소한 점과, 이로 인해 자녀의 출산기와 양육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부인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1991년)에서 15~49세 여성중 결혼율은 약 2/3(66.3%)에 달하며, 이들중 63.0퍼센트가 유배우상태이다. 연령별 결혼율은 30세 이상에서 97.0퍼센트를 상회하며, 20~24세는 20.3퍼센트에 불과하지만 25~29세는 80.6퍼센트이다. 또 기혼부인(15~49세)중 임신경험이 없는 경우는 3.1퍼센트에 불과하며, 93.0퍼센트가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생활주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후 출산경험을 가진 부인중 결혼시부터 첫출산시까지의 기간 *earlier interval*은 1935~1944년간 결혼에서 4.1년이 1990~1991년간 결혼에서는 0.8년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출산기가 빨라지고 있는 결과이며, 이는 첫출산 후 둘째출산까지의 기간 *first birth interval*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결혼후 첫출산까지의 기간단축은 최근에 이를수록 임신이나 출산이 결혼후에서만 이루어

〈표 4〉

결혼코호트별 부인의 출산시 연령 및 출산간격

(단위 : 세, 년)

결혼 코호트	결혼시 연령	(출산간 격)	첫출산시 연령	(출산간 격)	둘째출산시 연령	(총출산 간격)	막내출산시 연령
1935~1944	16.1	(4.1)	20.2	(3.2)	23.2	(19.6)	35.7
1945~1954	17.9	(3.2)	21.1	(3.0)	23.7	(15.8)	33.7
1955~1964	20.4	(1.9)	22.3	(2.8)	25.0	(11.0)	31.4
1965~1974	21.8	(1.5)	23.3	(2.5)	25.7	(7.3)	29.4
1975~1979	23.0	(1.4)	24.3	(2.4)	26.4	(4.5)	27.5
1980~1984	23.5	(1.3)	24.8	(2.3)	27.1	(3.7)	27.3
1985~1989	24.4	(1.2)	25.5	(2.2)	27.3	(2.1)	26.8
1990~1991	24.9	(0.8)	25.6	—	—	(0.8)	25.5

주 : 여기서 1935~1964년간은 1986년 가족생활주기조사자료에서, 그리고 1965~1991년간은 1991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에서 추정된 것임.

지지 않고 혼전임신이 증가하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 즉 혼전임신율은 1964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3.6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970~1974년 결혼코호트에서는 12.9퍼센트로, 그리고 1985~1989년 결혼코호트에서는 19.3퍼센트로 증가되면서 최근에는 5명중 1명이 혼전임신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이룰수록 부부들은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면서 총 출산기간도 축소되고 있다. 1935~1944년 결혼코호트에서 총 출산기간은 19.6년이 1985~1989년 결혼코호트에서는 2.1년으로 단축되고 있다(〈표 4〉 참조). 전통사회에서는 사망율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원했고, 많은 출산을 해야만 그중 생존할 수 있는 자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출산기도 길었지만, 근대사회는 많은 자녀를 원치도 않고, 적은 출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생존할 수 있어서 출산기는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총 출산기간은 약 20년에서 약 2년으로 1/10 정도 단축된 것은 가정생활은 물론 출산당사자인 부인생활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적은 출산이 단순한 산고(産苦)나 양육부담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개인의 역할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생활을 변모시키는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이다.

1986년 조사를 추정된 여성의 결혼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는 〈표 5〉와 같다. 동 표에서 주요 특징은 출산력 및 사망력 감소에 따른 자녀양육 및

〈표 5〉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

(단위: 년)

주기별 기간	부인의 결혼코호트				
	1935~44	1945~54	1955~64	1965~74	1975~85
가족형성기 (결혼시기-첫자녀출산)	4.1	3.2	1.9	1.5	1.2
가족확대기 (첫자녀출산-막내출산)	15.5	12.6	9.1	5.0	2.2
확대완료기 (막내출산-첫자녀결혼)	9.3	12.9	17.1	21.2	24.0
가족축소기 (첫자녀결혼-막내결혼)	15.5	12.6	9.1	5.0	2.2
축소완료기 (막내결혼-남편사망)	-5.8	-2.6	1.4	10.2	15.0
가족해체기 (남편사망-본인사망)	5.9	7.0	7.6	7.6	7.2
전체시기 (결혼시기-사망시기)	44.5	45.7	46.2	50.5	51.8

자료: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표 6〉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별 특성

(단위 : 세)

주기별 특성	부인의 결혼코호트				
	1935~44	1945~54	1955~64	1965~74	1975~85
초혼시연령 : 부인 (남편)	16.1 (20.8)	17.9 (22.5)	20.4 (24.3)	21.8 (26.3)	22.6 (26.4)
자녀출산시 : 첫째	20.2	21.1	22.3	23.3	23.8
부인연령 막내	35.7	33.7	31.4	28.3	26.0
자녀결혼시 : 첫째	45.0	46.6	48.5	49.5	50.0
부인연령 막내	60.5	59.2	57.6	54.5	52.2
남편사망시 부인연령	54.7	56.6	59.0	64.7	67.2
부인사망시 남편연령	60.6	63.6	66.6	72.3	74.4

자료 : 공세권 외,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교육기(확대완료기),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부부만의 생활기(축소완료기), 그리고 남편사망 후 독신생활기(가족해체기)의 연장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가족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생활의 주된 역할이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중심에서 적은 자녀의 교육과 부부중심으로 바뀌어진 점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확대가족이 부부중심가족 *conjugal family*으로 변모하면서 모든 자녀를 출가시킨 후 부부만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는 점은 주요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의 약화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부인은 16퍼센트에 불과할 뿐 젊은 고학력의 부인일수록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부부만의 생활기는 15년에 달하고, 또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만의 독신기가 7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결혼후 사망시까지 전체 가족생활주기에서 받은 자녀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받은 부부만으로도 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가족생활의 모습을 예견케 된다.

3. 가족문제

가족의 공동체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양관계에 의해서 존속된다는 점에서 가족문제는 부양문제로 귀착된다. 부양은 원래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을 뜻하지만 가족생활에서 이러한 점은 성원간의 상호 의존관계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가족부양은 부부간, 부모자식간 또는 친족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형 상호 교환관계 *Cross Inter-dependence; CID*가 그것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우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일방적 사랑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돌으로써 정신적 안위와

사회적 권위의 확보, 또는 노후생활의 의존 등 보상기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관계는 전적인 부양조건의 교환관계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또 다른 인과응보적 속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분화현상과 함께 가족부양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가족은 그 자체의 본질마저 재검토되어야 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가족을 에워싸고 있는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는 과연 가족부양의 퇴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성취업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은 대리모나 탁아소에 의존되고, 또 노인부양은 유료양로원과 같은 사회부양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뿐만이 아니다. 가족생활의 불균형 지표의 증가, 이를테면 이혼, 아동학대, 매맞는 부인, 가정파괴, 편부모 가족, 일인가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불구, 그리고 노인가구 등의 증가는 결국 가족부양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일까?

가족생활이 부양관계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할 때 부양체계의 와해는 가족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에워싸여 그 실상의 노출을 금기하고 있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는 그들의 활동이 가정이란 울타리내에 제한되고, 부모자식간도 역할을 달리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길 때 그 실상의 파악은 쉽지 않다. 다만 조사자료에서는 오늘날의 가족이 외형적으로 핵가족형태를 이루고, 그 구조의 단일성이나, 어떤 일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지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밝혀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이 실시한 가족생활주기조사와 가족기능과 역할에 관한 조사는 다소나마 가족부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해서 가족부양의 구조적 측면만을 언급코자 한다.

한국가족은 인구구조상 노인부양보다는 자녀부양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한 효의 이념으로 노인부양에 더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점은 19세기 초반만 해도 인간의 평균수명이 30세 이상을 넘지 못하여 대부분의 가정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반면, 다산형태가 추구되어 많은 자녀를 낳아 양육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출산조절이 이루어지면서 부양구조도 점차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60년 전체인구중 15~64세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총부양비는 86.0으로, 이중 93퍼센트가 유년부양비였으나 최근에 총부양비가 44.3으로 감소되면서, 이 가운데 유년부양비는 84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2020년경에는 총부양비가 40.6으로 추정되며 이중 유년부양비는 55퍼센트를 차지하여 유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유년부양비가 감소되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은 그것이 바로 가족부양의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1960년 이전까지만해도 6.0이상을 상회했던 합계출산율은 최근에 1.6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되고, 또 약 55세를 유지하던 평균수명이 최근에 71세로 연장되면서 이는 앞으로 80세에 접근할 때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노화지수가 83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표 7〉 참조).

여기서 출생율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결

〈표 7〉 인구지표의 변화

지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유년부양비 ¹⁾	77.3	78.2	54.6	37.3	29.4	26.8	22.4
노령부양비 ¹⁾	5.3	5.7	6.1	7.2	9.4	13.1	18.4
노화지수 ²⁾	6.9	7.2	11.2	19.4	32.0	49.1	82.9
평균수명(세)							
전체	55.3	63.2	65.8	71.3	74.3	76.1	77.0
남자	53.0	59.8	62.7	67.4	71.3	73.8	74.9
여자	57.7	66.7	69.1	75.4	77.4	78.7	79.1
합계출산율	6.0	4.5	2.7	1.6	1.6	1.6	1.6

주 : 1) 유년부양비는 0~14세, 노령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노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53, 1972, 1982. 「연도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2차시안, 총량부문 : 인구분야계획」.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자녀에 의한 가족부양의 어려움을 뜻한다. 그것은 부모자식간의 절대부양비가 2 : 1.6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부부중 자녀를 두지 않거나 딸만 두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출산력 조사에서도 딸·아들 구별없이 1명 이하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13퍼센트에 이르고, 반드시 자녀를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부인도 8.5퍼센트인 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2명 수준의 평균이상 자녀수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때 아들을 두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를 갖지 않는 부모는 4명중 1명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 아들에 의한 가족부양체제의 수정은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

가족의 부양비는 인구의 부양비와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가족생활에서 대부분의 유년층은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고 교육을 받게 되지만 노령층은 반드시 그들 자녀에 의한 부양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최근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중 취업율은 남자가 53퍼센트, 여자는 28퍼센트에 이르고, 65세 이후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거나 오히려 미혼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중 노인부부나 노인 독신만으로 단일세대를 이루는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중 33.5퍼센트로 1/3을 상회하고, 이는 도시의 노인가구중에서 26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의 노인가구중에서는 약 43퍼센트에 이른다. 또 노인들이 모든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약 72퍼센트에 이르지만 나머지 약 28퍼센트는 일부가족이 분거한 상태이다. 결국 독신 노인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14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도시에서 약 11퍼센트, 그리고 농촌에서는 약 17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공세권, 조애저, 1992).

이처럼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는 가족성원간

의 응집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자식간의 “효” 나 부부간의 “금실”, 형제간의 “우애”, 또는 친족간의 “화목” 등이 모두 가족간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역할이 다양화되고, 또 가족간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점은 형식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가족은 애정이 넘치는 정서적 관계에서 역할보안 내지는 경제적 협력관계로 변했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사회교육의 확대, 그리고 여성취업의 증가 등은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이 같이 생활하는 시간을 단축시켰고, 각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누가 더 가족생활에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세력화되고, 이러한 점이 가족갈등의 소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간생활에서 공동체의식과 개인주의의식은 상치(相馳)되는 개념이지만 언제나 병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 또는 고부간도 의견대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서 주요관심은 개인과 가족을 분리시키면서 나타나는 가족분화 내지는 고립화현상인 것이다. 젊은 층이 취학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분거형태를 이루고, 그러한 분거형태에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 *family of procreation*을 이루게 될 때 원래의 가족 *family of orientation*과는 소원한 관계가 된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최근 젊은 층이 결혼후 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성향으로 이어져 별거이유는 사회경제적 측면보다 개인주의적 측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김민자 외, 1991).

가족성원간의 응집력이 약화되면서 또 다른 현상은 부부들이 적은 자녀수를 두려는 경향이다. 적은 자녀수는 부부들이 그 당위성을 스스로 인식해서라기 보다는 사회적 가족계획운동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하겠다. 어쨌든 최근에 이룰수록 출산력 감소와 함께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가족생활 자체는 물론 출산당사자인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 전통사회

〈표 8〉

일부 사회·경제지표의 변화

지표	1960	1970	1980	1990
도시인구 구성율(%)	28	41	57	74
1차산업 종사율(%)	66	51	34	20
여성의 고교이상 학력(%)	35	62	78	85
여성의 취업율(%)	25.1	37.2	40.5	46.2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세)	21.6	23.3	24.1	25.1
합계출산율(부인당)	6.0	4.5	2.7	1.6
평균가구원수(명)	5.6	5.2	4.6	3.6
1세대가족 구성비(%)	7	7	15	24
3세대가족 구성비(%)	29	23	17	11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3, 1972, 1982. 「연도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공세권 외.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의 주부의 주된 역할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 등의 가내 역할로 본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30대 이전에 평균 2명 정도의 자녀를 두면서 가내역할은 물론 가외취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여권론자(女權論者)들의 주장처럼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뒤에 성별 불평등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출산 조절과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이러한 점을 완화시킨 것이 틀림없다.

출산력의 저하와 가사노동의 기계화,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 등은 주부들을 가정내에서만 안주할 수 없게 한 주요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부들(93%)은 취업을 원하고 그중에서 마땅한 일거리만 있다면 언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부인이 약 57퍼센트에 달하고 있다(김민자 외, 1993). 물론 1990년 통계는 15세 이상 여성의 취업율이 46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취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의 제약, 가정으로부터의 전통적 가사역할의 기대, 그리고 여성자신의 취업을 위한 훈련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생활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점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산업화를 노동·기술집약적 양산체제로만 생각할 수 없듯이 가족문제도 그 자체의 기능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기능이 가족기능의 일부를 대행한다고 해서 가족생활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족문제인 것이다. 사회기능에 의한 가족기능의 대행체제는 그만큼 가족생활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문제는 완화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가 사회발전만을 중시하는 가운데서

가족개발을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사회발전이 가족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조기능적 불균형이 바로 가족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개인능력을 위주로 한 취업과 소득수준에 의한 빈부격차가 개인주의 내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면 그 결과는 가족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면서 부양기능의 와해로 이어진 점이 근대가족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는 결혼과 부부생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부모부양까지 가족이라는 틀에서 그 묶음을 풀어 놓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연상케 되기 때문이다. 즉 결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지향율의 증가, 결혼 및 이혼에서의 자율화, 자녀가치 및 기대의 약화, 부모자식간 별거성향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산업사회에서 가족생활은 그 기능이 사회화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고, 대안없이 사회기능에만 이 끌려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는 일정한 공식을 찾기 어렵다. 전통가족처럼 오늘날의 가족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고, 남편이 생계를 맡은 대신 부인은 가사를 돕는 양립된 역할과,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인식은 이미 퇴색되고 말았다.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던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가족구성원간은 장벽이 없어야 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축성이 요구되는 것이 현대가족의 요건일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에서는 부모자식간도 개인의 역할이나 자율성을 위주로 분가가 이루어지고, 또 가족간 간섭을 배제하는 고립된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가족이 생산과 소비를 위주로 짜여

진 틀이라면 가족의 부양기능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가족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면 취업을 하고, 부부들은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은 자녀수를 원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질병치료는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노인보호나 부양 역시 시설보호 내지 시설양로에 의존하려 한다. 여기서 가족기능의 기업화 내지 전문화는 가족의 분화를 뜻하며, 이는 젊은 층에서부터 독립된 역할과 주거 및 자원을 향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때 그들 부모들은 부부나 편부모로만 남게 되고, 그 대안모색으로 사회부양체제의 도입을 요구한다면 결국 가족의 연계성은 단절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형태가 기능과 역할위주로 재구성되면서 생활의 만족은 그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높게 된다. 1986년 가족생활주기조사는 가정경제의 만족도가 젊은 층의 핵가족 형태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노령층의 핵가족과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에서는 상대적 불만이 높다(공세권 외, 1987). 또 현대가족은 가사운영 역시 전통관습에만 의존하지 않는 생활조건에 따라서 신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사주도권은 시부모와 같이 사는 2~3세대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젊은 부부에게로 쉽게 이양되고, 가사결정은 남성위주에서 부부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면서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도 약화되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공세권 외, 1990; 변화순 외, 1993). 이러한 점은 가족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권위나 세력이 편향성을 지닐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4. 결론 및 요약

현대가족의 특징은 한마디로 핵가족화로 지칭

하는 경우가 많다. 핵은 사물의 기본단위를 뜻하지만 가족은 부부나 부부와 자녀중심의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거단위의 가족은 미혼이나 이혼, 사별, 또는 별거 등으로 혼자사는 경우가 10퍼센트에 달한다. 둘이 사는 경우도 편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간만으로 사는 경우가 8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배우관계가 없는 가족은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한다(공세권 외, 1992). 가족이 혼자 살건, 누구와 같이 살건 그것이 문제일 수는 없다. 가족의 본질이 독립된 생활과 부양관계로 존속되는 공동체라면 그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는 구조기능적 측면(Goode, 1982)에서 다음 같이 세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변동과 관련된 부양체계의 와해이다. 인구변동의 두가지 특징은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는 물론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부양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가족부양을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간주한다면 인간수명이 80세에 접근하고, 합계출산율이 1.6수준을 계속 유지할 때 부모자식간 부양비는 2:1.6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사는 부부중 1명만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전체 부부중 1/3에 달하고, 또 자녀를 두지 않거나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경우도 1/5수준에 이른다(공세권 외, 1992). 이러한 성향이 계속될 때 부모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기 어렵고 전통적 가족제도의 수정도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파괴의 급증현상이다. 의도적 가정파괴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무분별한 인명살해, 유괴, 성폭행, 낙태 등의 증가를 뜻한다. 또 비의도적 가정파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 및 교

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와 불구자의 증가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병리나 각종 사고의 증가는 그것이 일종의 사회현상만이 아니다. 그 피해는 가족이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 가족결손으로, 그리고 부양부담으로 이어진다. 최근 사회병리로 인한 가정파괴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연간 2만명수준에 이르고, 또 장애자는 2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1993). 실로 이러한 누적현상은 엄청난 가정파괴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가족생활에서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가치관의 부전현상(不攄現象)이다. 말하자면 산업화에 따라서 가족기능의 일부가 사회기능에 의해 대행되면서 가족은 나름대로 기능조정이나, 역할개발 및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역할갈등이나 가치관의 혼란이 가족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가족의 공동체생활이 부양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러한 부양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경제적 측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부양은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양의 소홀은 가족간의 사랑과 유대를 유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구의 노령화, 질병구조의 만성화,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한 불구의 증가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양부담의 증가에 따른 역기능적측면이 아닐 수 없다. 즉 가족은 이러한 점에서 대응하는 부양역할은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양체계의 혼란은 물론 그 존속마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가족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의 분화 및 해체, 또는 기능부전 등으로 사회보호를 요하는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사회가 산업화에 따른 가족결손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적 “모델”일 수는 없다. 복지제도가 결손가족을 은폐시키기 위한 장치였다면 이는 가족개발을 서두르지 않는 한 또 다른 측면에서 가족결손을 조장하고 있음도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보완해 줄 새로운 복지제도의 고안도 필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3. 「1960년 인구센서스 결과보고」.
- _____. 1972.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 _____. 1982.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 외.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세권, 조애저, 김승권, 손성희.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자, 공세권, 조애저. 1991. “결혼한 부인의 시부모와의 동거형태”, 「보건사회논집」11(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민자, 공세권, Karen O. Mason. 1993. “한국에서의 기혼부인의 취업: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사회논집」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화순, 원영아, 최은영.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애저, 공세권. 1992. “최근 한국여성의 결혼행태”, 「1991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2차 시안, 총부문: 인구분야 계획」.
- 통계청. 1993. 「1992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 Goode, William J. 1982. *The Family*, Pri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Chang, Y. S. 1966. *Population in Early Modernizatio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Hajnal, J. 1953.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s, *Population Studies* 7.
- Kim, Y. 1967. Age at Marriage and the Trend of Fertility in Korea, *1965 World Population Conference Vol.2*, Belgrade, Published in New York.